

MZ 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김 중 백
교수 · 사회학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곤 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결정한 거 맞아? 다른 사람들도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무슨 연유로 말끝마다 공정을 따지게 되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이 우리의 사고 체계에 깊게 자리 잡은 것만은 사실인 듯싶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공정에 집착하고 이 현상이 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정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는 공평과 ‘진리에 맞는 도리’를 뜻하는 정의가 결합한 단어이다. 사실 공정이란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꽃을 피운 근대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정치 구조이며 자본주의는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 체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며 반대로 사회가 공정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왜 공정성이 최근 사회 이슈의 중심에 등장하는가?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명한 취임사인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적 담론의 시발점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공정이란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특성을 구성하는 구조, 문화, 조직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세대별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 가운데 어떤 세대가 현재 공정을 둘러싼 담론의 장의 주역이 되어 있는가? 이는 바로 MZ 세대이다. 일반적으로 1981년에서 2012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MZ 세대는 그 안에서도 거의 30년 차이가 있기에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성과 관련된 MZ 세대는 교육과정을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호혜적 공정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대학주보DB)

“

MZ 세대의 공정을 중시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정의의 개념도 포함하기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다.

”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어떠한 경험과 성장환경이 MZ 세대가 공정을 중시하고,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는가? 최근 공정과 관련되어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몇몇 사회 현상을 통해 MZ 세대가 공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 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쟁을 들 수 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환 당시 비정규직 가운데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중 일부인 2,143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취업 준비생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발전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MZ 세대의 반발이 난감했을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리는 일이라 항변해도 취업을 준비하는 MZ 세대는 불만을 표출했고 민주화 세력이라 자평하는 현 집권세력이 생각하는 공정이 MZ 세대의 그것과는 같지 않음을 통해 공정의 개념은 불변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준비생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 LG전자와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MZ 세대 사무직을 중심으로 보상체계 재산정을 원하는 노조가 결성되었다. 이 노조는 기존의 생산직을 중심으로 투쟁을 중시하는 노조와는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개인의 삶의 질과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노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정당하며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를 중요 가치로 삼는다. 한 마디로 직장 문화와 구조가 공정하냐가 MZ 세대 직장인을 움직이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왜 MZ 세대는 공정에 유난히 민감하며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는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MZ 세대는 어려서부터 대학입시를 통해 능력주의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고 정보의 무한 공유가 가능한 소셜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였기에 투명한 과정에 익숙하다. 따라서, 능력주의와 투명성을 통해 진행된 과정과 얻게 된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공정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또한, MZ 세대의 성장환경을 반추해 보면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삶의 근간이 되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달리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6년 박근혜 탄핵사태와 더불어 성장했다.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참여가 평화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 효능감(efficacy)과 결합되어 현실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 불평등,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방적인 한쪽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규정할 수 없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징을 가진다. MZ 세대의 공정을 중시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정의의 개념도 포함하기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사회를 위한 공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정이 될 우려가 있기에,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호혜적 공정을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쪼록 MZ 세대의 공정의식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사회적 가치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